

Issue Comment (기업)

제약/바이오 오병용 02-3770-5344, byoh@hygood.co.kr

박민주 02-3770-5144, minju.park@hygood.co.kr

2021.05.26

아미코젠 (092040)

탐방노트 : 시간이 다가온다.

● 기업소개

>> 아미코젠은 2000년 설립하여 2013년 상장한 바이오 소재 기업이다. 대표적으로 1)세 파계 항생제 원료(7-ACA) 제조에 필요한 효소(CX효소) 제조, 2)박테리오파지 항생제 원료 인 엔돌라이신 생산, 3)바이오 의약품 배지생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스킨메드, 셀리드, 클리노믹스 등에 전략적 투자를 통해 국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 1Q21 매출액은 306억원(+21.5% yoy),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흑자 전환하며 +8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자회사인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 유한회사에서 Tulathromycin 매출 이 크게 증가하며 호실적에 기여하였는데, 중국 내 완제 허가를 받게 되면 독점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0톤 규모 캐파 증설이 예정되어 있고, 내년 하반기 가동 시 매출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엔돌라이신 사업 - 2023년을 보자.

>> 차세대 항생제로 꼽히는 박테리오파지 신약의 원료가 되는 Endolysin 사업도 진행중이다. Endolysin은 생산성이 낮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효소 사업을 통한 노하우를 통해 경쟁사 대비 수율이 높다. 원가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고수율이 중요한데, 동사는 이를 통해 시간단축과 원가절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독일의 박테리오파지 항생제 전문기업인 라이산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라이산도는 자사의 항생제 신약 상업화시 원재료로 동사의 Endolysin을 사용할 예정이다. 라이산도가 가진 Endolysin 기반 파이프 라인만 10개 이상이다. 동사는 Endolysin을 비롯한 의약품 미생물 단백질을 생산할 신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착공은 올해 말~내년 초 중에 시작될 예정이며, '23년에 가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고가의 원료인 만큼 큰 수익성이 기대된다.

● 바이오의약품 배지 생산 사업 - 내년부터 가시화.

>> 배지사업도 중요하다. 배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필수 재료다. 동사는 ArtiaBio와의 JV 계약을 통해 배지 제조 기술을 확보했다. 올해 3~4분기에 공장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23년부터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통 수주가 1~2년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쯤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바이오의약품(항체)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로, 최근 바이오의약품 소재 국산화 요구가 크다. 231억 규모의 배지 국산화 국책과제에도 동사가 선정되었으며, 사업의 핵심은 동사의 배지개발이다.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사의 예상 수요처로 꼽힌다. 동사는 바이오의약품 기초소재 두 가지(배지, 레진)를 확보한 국내 유일 기업이다. 물론 아직 상업화까지는 기간이 남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기대감은 커질 전망이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 발간일 현재 동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 스톡옵션, 개별주식옵션 등을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 발간일 현재 동사는 회사채 지급보증, 인수계약 체결, 계열회사 관계 또는 M&A 업무수행,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 보유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공표되었으며, 홈페이지 공표 이전에 특정기관에 사전 제공 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오병용)

이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항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